홀리스틱 미술교육의 제안*

—홀리스틱교육관점에서 미술과교육의 지향과 실천

김 성 숙**

〈요 약〉

오늘날 학교미술 교육현장은 생명존중교육과 정신성교육(spiritual education)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운동으로 홀리스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홀리스틱 교육의 이념에 기초하여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전략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술교육에서 홀리스틱 교육이념 도입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홀리스틱 교육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지향과 전략을 탐색 한 후,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실천 사례와 학습효과를 몇 가지 소개하고 살펴보았다.

미술과 교수 학습방법에 있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인간과 생태계와의 상호 연계성과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사고의 전환과, 신체와 정신의 연계교육을 추구할 것을 제안함으로서, 미술과 본래의 목표인 진정한 미적인간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 관계성 인식, 통합교육, 실천적 접근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나갈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1999). 급진적인 변혁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의 사회 현상 속에서, 교육은 '문화의 전승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리고 미래를 겨냥한 우리 교육의 현 실정은 문화의 전승보다는 변화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미자, 2001: 279).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각 전문분야의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의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시대를 막론하고 미술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 속에 내재된 무한한 자

* 본고는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04 학술대회(2004.6.26,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발표했던 '홀리스틱 미술교육'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논문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 광주교육대학교 조교수

기 창조력의 육성과 표현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인 자기 학습력을 길러주어 아동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가도록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와주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미술교육의 중심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며 '아동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의 양식을 익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사회 속에 실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정문성, 2002: 59)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은 사회전체의 문화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교육자는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흐름을 잘 진단하여 '큰 문화의 흐름을 타면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큰 문화의 흐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최근에 21세기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서구 미술교육계에서는 시각문화미술교육 또는 VCAE(Visual Culture Art Education)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 인성교육차원에서는 전연관적교육인 홀리스틱 교육의 흐름도 주목할 만한 큰 흐름의 하나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홀리스틱 패러다임(holistic paradigm)은 1980년대 이후 심리치료, 의학,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정치학 이론분야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된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인 사고체계이다. 홀리스틱 교육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발현과 자아실현'을 강조한다. 그들은 교육의 목적을 '모든 사람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예술적, 영성적 잠재 가능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의 근본적인 변용(transformation)에 대해 언급한다.(박영만, 1999: 59; 2002: 19)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은 교육전환운동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생명(Life)을 중시하며, 이제까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전개해 온 이성중심, 개인중심, 인간중심 등, 중심주의적 사유로부터 벗어나 상호 간의 관계회복과 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사유의 전환을 요구한다. 홀리즘(holism: 전일론, 전체론 또는 전연관주의)에 유래하는 홀리스틱 교육은 또한 인간과 모든 생태계사이에 상호균형과 통합과 연계를 꾀하며 잠재력 개발, 예술적 교육, 치유적 건강 등 지・정・의의 전인교육(김현수, 1999: 2-46)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외치면서도 결과에 치중하는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혼란 속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서, 홀리스틱 교육의 원리와 방법론은 공교육의 여러 교과에 걸쳐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술과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미술교육을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 보고, 미술의 각 영역 사이의 상호균형과 통합과

연계를 꾀하는 교수·학습활동의 시도를 통해, 아동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홀리스틱 관점에서 미술교육을 재조명해 볼 때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과교육 중에서도 미술과 교육은, 홀리스틱 교육의 패러다임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과학, 심리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교육학, 실과, 체육 등의 타교과와는 달리,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현재까지는 초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미술교육분야에서 홀리스틱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필자의「홀리스틱 교육 관점에서의 슈타이너 '교육예술'」(2001: 53-67)과 김정희의「홀리스틱 교육과 예술교육」(2002: 315-355)등을 들 수 있겠다. 내용은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이나 교육방법론, 발도르프 학교의 예술교육을 통한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접근으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홀리스틱 교육 관점으로 비중 있게 탐색된 미술교육 관련연구는 거의 드물다.

필자는, 2000년도부터 홀리스틱 교육 교장연수 강사로 관련학회와 연결되어 미술과에서의 홀리스틱 교육실천에 대해 나름대로 모색해 온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이 곧 지구공동체의 행복과 연관되어 조화를 이루는 홀리스틱 교육의 기본원리가, 인간 개개인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예술교육사상과 상당부분 상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민족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념과도 근원적인 면에서 공통부분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학교미술교육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생명존중교육과 정신성교육(spiritual education)에 초점을 맞추고, 홀리스틱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관계성'을 중시하는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전략을 탐색하고 홀리스틱미술교육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술교육에서 홀리스틱 교육이념 도입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홀리스틱 교육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지향과 전략을 탐색한 후,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한 필자의 미술교육 실천사례를 일부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미술과 교수 학습방법에 있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및 생태계와의 상호 연계성과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사고의 전환과 신체와 정신의 연계교육을 추구할 것을 제안함으로서, 미술과교육 본래의 목표인 진정한 미적인간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미술교육에서 홀리스틱 이념 도입의 필요성

1. 홀리스틱 교육의 경과

미술교육에서 홀리스틱 이념 도입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홀리스틱 교육의

경과에 대해, 필자가 기발표한 관련논문(김성숙, 2001: 54-56)을 요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홀리스틱 패러다임은 고대 영원철학(perennial philosophy)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낭만주의에 의해 계승되었던 패러다임이다. 홀리스틱 교육철학 사상은, 미주지역에서 1978년 미국 홀리스틱 의학협의회가 창립된 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85년 밀러(John P. Miller)가 동서고금의 교육사상과 이념, 방법 등을 근간으로 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홀리스틱 교육과정』(The Holistic Curriculum)을 출판했다. 1988년에 론 밀러(Ron Miller)는 계간학술잡지인 『홀리스틱 교육저널』 (Holistic Education Review)을 창간했으며, 이로써 '홀리스틱 교육'이란 개념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김현수, 1999: 2-47).

1990년 6월에는 제1회 홀리스틱교육 국제회의가 미국시카고에서 개최되어, 홀리스틱 교육추진단체인 GATE(Global Alliance for Transforming Education, 변용교육을 위한 세계동맹)을 발족시키고 홀리스틱교육에 관한 '시카고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1991년 6월, 콜로라도에서 개최된 제2회 홀리스틱 교육 국제회의에서는 '시카고 선언'을 재검토하여 10여 관점에서 그것을 구체화하여 'EDUCATION 2000: 홀리스틱 교육비전(A Holistic Perspectives)'을 선언하였다. 1992년 6월에는 오클라호마에서 제3회 홀리스틱 교육 국제회의가 '다문화 세계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1993년 3월 하와이에서는 '교육변혁과 환태평양교육'의 주제로 제4회 홀리스틱 교육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박영만, 1999: 21-52).

이때 환태평양교육개혁 심포지움에서 홀리스틱 교육이념을 접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전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는 1997년 2월,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연구회'를 결성(2.26)하여 창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년 5월에는 김현재를 중심으로 '인천교대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연구소'가 설립되고 '극동아시아 홀리스틱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International Seminar and Workshop on Holistic Education in Far Eastern ASIA)'이 개최되었다. 1999년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새로운 지평: 홀리스틱 학습'을 주제로, 그리고 2001년(주제:Holistic Learning: Breaking New Ground)과 2003년에도 토론토에서 '홀리스틱 학습(Holistic Learning)'을 위한 홀리스틱 교육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후 한국 홀리스틱 교육실천연구소는 2000년 2월,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학회'로 개칭하여 국제회의 참가 및 정기적인 초·중·고 교장단 특별연수와 일본의 초·중등학교 홀리스틱 교육현장시찰, 5차례의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의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부터는 다시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로 거듭나 학술세미나, 교장연수, 학회지 발간, 참고도서 발행 등 홀리스틱 교육실천의 확산을 위한 논의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2. 홀리스틱 미술교육의 필요성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홀리스틱 교육은 변용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변용주의 교육철학은 '지능, 사고, 학습, 학생, 교사,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환을 지향'한다. 홀리스틱 교육이 지향하는 균형, 포괄, 연계의 세 가지 이론적 틀은 바로 변용주의 교육철학의 지향점들과 상통하며, 양쪽이 모두 '표현적 학습을 통하여 인간적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변용주의는 홀리스틱 교육의 성격을 특징짓는 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홀리스틱 교육은 인간의 신비한 생명이 대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명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구공동체의 생명권에 대한 깨달음의 확장을 추구한다(김현재, 1999, p.3). 홀리스틱 교육사상속에는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것들과 이어져 있다'는 인식, 즉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것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의 직물'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이 세계 속에서 생을 영위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근본부터 재인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은 1854년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인 테와(Tewa)족의 추장이 정든 자신들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려는 백인인 미국대통령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회신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

> ....우리들은 이 지구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 지구는 또 대지는 우리들의 일부이기도 하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들. 사슴, 말, 위대한 수리는 우리들의 형제.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흘러 떨어지는 냇물, 초원위에 핀 꽃속의 꿀과 말의 땀, 그리고 인간의 땀조차도 모두 하나의 종족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맺어져 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이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대로 모태인 대지와 아이들의 신체에서도 일어난다. 인간이 이 생명의 직물을 짠 것이 아니라 인간도 또한 그 직물에 짜여진 한 가닥의 실에 지나지 않는다....(일본홀리스틱연구회, 2000: 35-36).

이와 같이 인간은 지식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무수한 그물코 같이 심원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홀리스틱 교육의 출발점이다. (박영만, 2002: 52). 여기서 '교과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는 이유는 인간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를 그러한 본래의 세계로 있도록, 그 속에서 존재자들이 각자의 존재의 의미를 잘 드러내도록 허락하고 허용하기 위함'이다. 즉, '세계와 그 존재자들을 그 자신으로 자유롭도록 해방하는 능력'을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홀리스틱 교육에서 교과의 능력계발이

란 근본적으로 이러한 '해방능력의 계발이며, 이를 위해 해방의 형식들을 형성하는 일'이며 '존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화에 대한 관계능력의 계발'이 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과 세계와의 관계능력 형성을 위한 매개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학생과의 관계를 수행하는 관계자'가 되는 것이다(박영만, 2002: 7; 정은혜, 2000. 재인용).

요컨대, 홀리스틱 교육에서 교사는 교육기술자가 아닌 교육의 전문가이다. 교사들은 학교 일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각기 자기 발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교장은 앞장서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홀리스틱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사고, 교수, 학습의 분리에서 통합을 지향한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만 교육이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고 발전하며 되살아난다는 것이다(박영만, 2002: 52).

이상과 같은 홀리스틱 교육의 주장들은, 미술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간내면의 표현을 통한 자아개발, 자아의 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크게는 현행 미술과 교육의 목표인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는 총괄목표와도 무관하지 않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7) 또한 미술이 인간의 자아표현 수단의 하나이며, 미술교육이 궁극에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성장·자기실현의 교육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이 가능한 미적 자유인을 육성하는 교수·학습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미술과 교육이 아동에게 미술활동에 관한 기초·기본 지식과 능력을 길러주어, 한 인간이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며 미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다양한 조형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기체험을 확장하고 미적인 자기교육의 힘을 육성하여, 스스로 미적 인간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돕는데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김성숙, 2003: 16-19), 미술교육의 본질은 이미 홀리스틱 교육의 지향점과 거의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래 근본적인 교육의 지향점은 같으나,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현재 생명존중의 교육과 상호 생명체간의 관계성의 인식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학교교육현장에서, 이제 미술과 교육은 더 이상 종래의 좁은 독자적인 학문 경계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세계를 겨냥한 공존의 자연관, 탈인간 중심주의 문화, 총체적 인식으로의 전환, 타 교과와의 통합학습을 통한 시야의 확장, 개인과 세계의 관계성 교육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 등,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환의 흐름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왜, 홀리스틱 교육인가? 라는 관점에서, 먼저 지금까지 미술교육이 현대교육 속에서 간과해 온 마음교육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보

다 확장된 시좌에서, 미술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고 다양한 사고에서 비롯된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과 개발을 통해, 점차 주변 관련 학문과의 연계와 통합을 발전적으로 활발하게 시도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Ⅲ. 홀리스틱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실천방향

1. 미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초적 탐색

홀리스틱 교육은 학생의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측면 등, 인간의 전 존재에 대해 관계를 갖고자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슈타이너 교육(Waldorf Education)이나 전인교육, 인간성교육 등과도 근본적으로 상통한다. 그러나 위의 모든 개념이 홀리스틱 교육패러다임에서 영향을 받고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홀리스틱 교육개념이 공공연화 된 시기가 1990년대 이후인 것으로 미루어 슈타이너 교육이나 전인교육, 인간성교육 등의 패러다임의 장점을 폭 넓게 포괄하고 일면으로는 더욱 보완·발전시킨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홀리스틱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은, 1991년 6월 GATE총회의 검토를 걸쳐 발표된 'EDUCATION 2000/ 홀리스틱 교육비전선언'(1991.8)에 제시된 다음의 홀리스틱 교육 10원칙에 잘 표명되어 있다. 이 교육비전은, 현대교육의 위기상황위에 민주적이고 생명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며 동시에, 21세기의 다양한 곤란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해가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개개의 상위점을 넘어 통합적이며 공통의 방향인 기본방침(Principle)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김현재, 1999: 8). 홀리스틱교육 10원칙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원칙-인간성의 최우선: 교육의 근본목적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참되게 배우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학습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
> 제2원칙-인간 개개인의 존중: 학습자를 그 누구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중을 강조한다.
>
> 제3원칙-경험적 학습의 중시: 교육은 경험의 소산이며 생명의 세계에서 체득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다. 학습은 여러 감각으로 적극적으로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다.
>
> 제4원칙-홀리스틱 교육에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과정의 전체성이 중시되어야하며 홀리스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나 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5원칙-새로운 교사의 역할: 교사는 학습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며 교사자신의 내면적인 성장과 창조적인 인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제6원칙-선택의 자유: 참된 교육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 학생들은 골라낼 가치가 있는 학습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필요하다.

제7원칙-참여형 민주주의 교육: 참된 민주사회의 창조를 위해 모든 시민이 참된 의미에서 정치 및 교육운영의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해야한다.

제8원칙-지구시민교육: 생태학적 사고방식을 길러, 거대한 생명구조 안에서 인간생활과 다문화와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기여할 역할을 각성하게 한다.

제9원칙-지구소양교육: 지구생명권 교육 또는 공생을 위한 생태교육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길러 자연을 개발해야만 하는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공생해야하는 존재로서 인식과 자각을 촉구한다.

제10원칙-정신성과 교육: 모든 사람은 성스러운 정신적 존재임을 인식하여, 그러한 정신적인 연계 속에서 교육은 경쟁이 아닌 '생명'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임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과 사물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야한다(김현재, 1999: 9-17).

이러한 홀리스틱 원칙의 교육적 의미와 내용은 다소 방대한 느낌마저 들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수·학습방향이나 목표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홀리스틱 교육에서 강조하는 공생을 위한 지구생태계교육, 정신성교육, 인간성교육 등은, 신체(body), 정신(spirit), 혼(soul)의 전인간적인 존재의 육성과 체험과 정신성에 교육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미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할 교육방향과 근본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10대원칙을 중심으로 홀리스틱 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원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미술교육의 실천방향을 나름대로 탐색해보고 기본모형으로 도식화해보기로 한다. 그를 위해 홀리스틱 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적 패러다임을, 이론적 선구자인 밀러(John Miller)가 『The Holistic Curriculum(1996)』에서 포괄(inclusion), 균형(balance), 연계(connection)의 세 가지(박영만, 2002: 34)로 간단히 개발한 것을 홀리스틱 교육을 위한 이론적 틀(frame)인 지향의 기준으로 하고, 홀리스틱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미술과 교육의 지향을 상정하기로 한다. 또한 미술과 교육의 실천전략은 내용영역별로 홀리스틱 교육 10원칙과 관련성이 있는 활동을 연관 지었다.

2. 미술과 교육의 지향과 실천 전략

<표 1> 홀리스틱 관점에서 미술과 교육의 지향과 실천전략

홀리스틱 교육		미술과 교육	
기본 지향점 J. Miller(1993)	10대 원칙	기본 지향점	실천전략 (내용영역)
(3가지 지향점) 1. 포괄 (inclusion) · 전달 · 상호작용 · 변용 2.균형(balance) · 교육자의 관심 · 교육자의 의도 · 교육자의 자세의 경향성 3. 연계 (connection) · 교육과정 · 수업방법상의 연계 (6가지 다원적 연계) ①직관과 이론적 비판적 사고 ②마음과 신체 ③교과간 (지의영역) ④개인·학교와 커뮤니티 ⑤인간과 지구 ⑥자아와 '셀프'와의 연계	1. 인간성의 최우선: 인간의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가는 것 2. 인간 개개인의 존중: 학생들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3. 경험적 학습의 중시: 교육은 경험의 소산, 생명의 세계에서 체득한 것들을 전하는 것 4. 홀리스틱 교육에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과정의 전체성 중시 교육제도, 정책의 전환 5. 새로운 교사의 역할: 교사의 내면적인 성장과 창조적 인식의 촉진 필요 6. 선택의 자유: 학습과정의 전단계에서 선택의 기회 부여 필요 7. 참여형 민주주의교육 참된 의미에서 정치 및 교육운영의 참여능력신장 8. 지구시민교육: 지구생태학적 사고방식, 인간생활과 다문화와 자연과의 관계 인식 9. 공생을 위한 에콜로지 교육: 생명에 대한 외경심, 지구생명권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교육 10. 정신성과 교육: 모든 사람은 성스러운 정신적인존재, 교육은 경쟁이 아닌 '생명'과의 건강한 정신적 상호작용	심미성의 추구 (총체적 미적 체험) · 미적정서 · 미적감각 · 미적태도 창의성의 추구 · 표현능력 연계성의 추구 균형성의 추구 통합성의 추구 조화성의 추구 · 표현능력 · 감상, 비평능력 자연환경의 추구 · 미적체험 · 환경교육 공동체의 추구 참여성의 추구 전인성의 추구 · 사회성 신장 · 협동심 배양 · 실생활에서의 활용능력 배양	1. 미적체험 영역 · 자연 및 생명체험, 환경교육의 활성화 전략 · 정신성, 심미성, 자연환경의 추구 (홀리스틱원칙 1, 2, 3, 8, 9, 10 해당) 2. 표현영역 · 협동학습(전체학습, 모둠별 학습 등), 자율·선택학습 전략 · 포괄, 균형, 연계의 조화를 통한 공동체의 추구, 창의성, 참여성, 전인성, 통합성, 균형성 추구 (홀리스틱원칙 1, 2, 3, 4, 6, 8, 9, 10 해당) 3. 감상영역 · 통합교과 학습 전략 · 통합교육과정(타교과간, 미술교과내) 재구성 전략 · 포괄, 연계의 조화를 통한 전체성, 창의성, 참여성, 조화성, 통합성, 균형성, 전인성의 추구 (홀리스틱원칙 1, 2, 3, 4, 6, 8, 9, 10 해당)

※표 내용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23-31; 최유현, 2001: 132-134.

Ⅳ. 홀리스틱교육에 기초한 미술교육 실천사례

1. 자연체험을 통한 미술교육-경험적학습의 중시(연계)

■ 나무의 마음 표현하기

<표 2> 나무의 마음 표현하기(2003. 9. 25), 시간: 2교시, 1-4학년

주 제		나무의 마음 표현하기
활동목표		자연물, 식물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하는 눈을 기르고,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표현력을 확장시킨다.
준 비 물		크레파스, 물감 3원색, 도화지, 파렛트 접시, 붓, 스펀지, 물통
전개 과정 (활동 내용)	도입	·나무에 대한 발문 - 나무 하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 비바람, 해풍, 폭풍우 속에서 나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 어떤 나무를 가장 좋아합니까?
	전개	·자기가 생각하는 나무 그려보기(기존의 습관대로 그려보기 10~15분) ·밖으로 나가 고목나무 → 신체율동: 몸으로 나무의 자세 흉내 내고 표현 ·자연체험-나무를 안아보고, 냄새 맡고, 귀 기울여보고, 나무에 사는 벌 레 등을 관찰해 본 느낌을 안고 실내에 돌아와 수채화로 그려보기 *(표현)- 물에 적신 화용지에 번지기 기법
	정리	·그림 수거 정리 ·서로 작품 보며 느낌 이야기 하기 ·체험카드 기록

■ 아동작품 비교(1~4학년)

■아동의 체험후기 <표 3>

주제	나무의 마음	일시	2003년 9월 25일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 새롭게 발견한 점, 가장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나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다. 나무의 잎과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장준석, 7세)
・그림을 그릴 때 초록색과 빨강색, 노랑으로 섞으면 갈색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김효원, 1학년)
・나무의 신비로운 느낌을 보았다. 멋있는 나무에 벌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염예슬, 4학년)
・그 큰 나무를 보고 벌레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다.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 줄 몰랐다. 내가 나무를 직접 본 것이 좋았다. (김지솔, 1학년)
・나무는 작은 것만이 아니라 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효원, 1학년)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여러 해를 산 나무라는 것이 알게 된 게 기뻤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나무가 꼭 씨를 뿌려야만 싹이 나는지 그걸 고민했다. 광주교육대학교에 제일 큰 나무가 있어서 가장 좋았다. (방혜린, 2학년)
・그 나무처럼 크게 자라고 싶다. 더 멋진 나무를 보고 싶다.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니...! 이끼가 껴서 초록색이다. 큰 나무가 좋았다. (김진영, 3학년)

[지도소감]
나무에 대한 느낌, 나무에 대한 생각, 내가 좋아하는 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통해 아동들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밖에 나가 살아있는 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안아보고, 냄새 맡아보고, 나무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는 자연체험을 한 후에 그려보는 활동에 무척 흥미 있게 참여하고 기뻐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경험 전에 이루어진 나무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에서 실제로 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해보고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경험적 학습활동을 통해 이와 연계하여 더욱 자연스럽고 풍요한 표현이 이루어짐을 아동 스스로 깨달았다.

[학습효과]

자연현상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식물, 동물을 좀 더 아동들에게 자세히 관찰해 보는 계기를 주었다. 아동이 사물에 대한 개념적・고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자연체험을 통해 몸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해본 것을 표현과 연계해 보는 미술활동을 통해, 사물에 대한 기존 이미지에서 상당히 탈피하여 보다 이미지가 다양하게 확장된 풍부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술 표현력의 향상도 아동자신의 생명세계에 대한 경험의 소산이며 체험과 연계된 이미지 확장의 성과인 것을 알았다.

2. 미술재료의 확대-선택의 자유(포괄)

■ 양파껍질을 이용한 자연색 물들이기

<표 4> 천연염색(2004. 2. 28) 시간 : 2교시, 1~5학년

주 제		자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활동목표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염색활동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미술재료에 대한 창의적 탐구능력과 자연물의 고유한 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재료를 찾아 실생활에 미적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준 비 물		양파껍질, 염색물, 긴 나무젓가락, 끓인 물,(또는 1회용 가스버너, 용기)
전개과정 (활동내용)	도입	· 각자 준비한 재료를 관찰하고 자연색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봉숭아, 포도껍질, 감꽃 등은 어떤 색의 물을 들일 수 있을까요? · 우리주변에서 손쉽게 물들일 수 있는 자연색들에 대해 말해보기
	전개	· 재료로 자연색을 만들어 염색물에 물들이기 - 끓인 물에 재료를 넣어 잘 저으면서 색 만들기 - 직접 물을 끓이면서 재료를 넣어 색을 우려내기 · 염색물을 물들이면서 색의 변화 관찰하기 - 색이 점점 진해지면 약간 식힌 후, 염색물을 넣고 물들이기 · 잘 주물러가며 고르게 물들이기.
	정리	·염색물을 짠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서 말리기 ·염색활동과정에서 특히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점을 서로 발표하기.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고 체험카드 기록하기.

■ 아동의 천연염색 활동과정

■아동의 체험후기와 지도소감 <표 5>

주제	자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일시	2004년 2월 28일
・양파는 껍질색이 좀 맘에 안 들어서 안 예쁠 줄 알았는데 예쁜 레몬색이 나와서 무척 신기했다. (문주리, 5학년) ・재료를 끓이면서 젓는 느낌이 특히 좋았다. 양파껍질은 예쁜 레몬 색이 나와서 좀 놀랐다. (최송희, 5학년) ・양파껍질에서 노란 색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고 예뻤다. 이제부터 양파껍질을 모아서 여러 가지 물을 들여야겠다.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장준석, 1학년) ・양파로 물을 들이면 갈색처럼 안 예쁜 색이 될 것 같았지만, 아주 예쁜 노란색이 되자 신기하였다. 우리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양파껍질도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다. 식품에서 색을 찾아 재료를 우리가 직접 준비한 게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즐거웠다. (천해주, 4학년)			
[지도소감] ・아동이 선택한 손쉬운 재료로 미술체험을 해보고 신기해하며 즐거워하는 생동감 있는 미술수업이 되었다. 생활주변에서 여러 재료를 더욱 발견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염색 활동을 하고 싶다는 표현의지가 강했다. 아동에게 주어진 재료선택의 자유가 학습의욕을 높이고, 친구들 및 자연재료와의 상호작용인 천연염색 활동을 통하여 자연색의 아름다움과 농도의 차이, 염색의 즐거움과 신기함을 알게 되어 미술재료에 대해 새롭게 눈뜨는 포괄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공동체의 추구(협동학습)-지구시민교육(연계・포괄)

■주변과 환경을 고려한 조형물 <표 6> (2003-2학기, 광주교대 2년생), 4시간

주제		주변과 환경을 고려한 조형물 꾸미기
활동 목표		우리주변의 환경과 건축을 참고하여 모둠별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입체조형물을 만들어 꾸며봄으로써, 인간생활과 실제 생활주변의 자연과 환경, 건축이나 조형물과의 관계인식에 기초한 표현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협동학습과정에서 상호관계를 통한 협동심과 참여성, 책임의식을 기른다.
준비물		모둠활동 계획과 구상에 따른 각기 다른 조형물 재료
전개 과정 활동 내용	도입	모둠조 구성-조형물 구상-아이디어 스케치체크, 활동재료 체크
	전개	5-7명씩 각기 제작의도에 맞추어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 조형물 공동제작 (학교 강의시간외에도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함께 지혜를 모아 협동작업)
	정리	・조별작품발표회(제작의도 및 제작과정, 조형물의 특징, 느낀점) ・작품감상 및 평가(제작상의 에피소드, 친화감, 조형물의 이해심화)

■ 다양하게 표현된 학생작품(학부 2년생)

[어린이를 위한 꿈동산]

[전통교육을 위한 민속마을]

[희망의 교도소]

[수중 해양레저타운]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소감

주제	주변과 환경을 고려한 조형물 꾸미기 (학부 2년생, 조별활동)

[학생들의 제작의도 · 소감]

· 어린이를 위한 꿈동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처럼 크고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한적한 숲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싶었다. 특히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기 좋고, 여러 가지 산새들이 지저귀고, 희귀식물들과 작은 동물들이 있고, 비단잉어나 금붕어들이 놀고, 보트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아담한 놀이공원을 구상해보았다. 모두가 미술에 소질이 없어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고 막막해했으나 인터넷에서 놀이공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각자 맡은 부분을 열심히 만들어와 학교에서 조립하였다. 모여서 작업하는 동안 친구들의 재주에 서로 놀랐고 가능성을 발굴해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주제	주변과 환경을 고려한 조형물 꾸미기 (학부 2년생, 조별활동)

・전통교육을 위한 민속마을- 용인에 '민속촌'이 있지만 지방 어린이들이 가보기엔 너무 멀어 시간과 경비상의 문제로 감성이 풍부한 시기에 교육자료로 활용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컴퓨터게임으로 닫힌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얼이 담긴 옛 사람들의 생활 터를 재현하여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여러 가지 옛 놀이도 살려 현대인들이 시공을 넘나들며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친구들과 노끈을 엮어 초가지붕을 만들고 싸리비를 잘게 잘라 울타리를 만들고, 주름종이나 찰흙, 작은 돌맹이, 모래, 색점토, 나뭇가지, 나뭇잎 등을 사용하여 장독대, 사람, 시내, 밭, 툇마루 등을 만들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했다. 모여서 고생한 이상으로 보람 있었고, '우리도 생각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는 놀라운 자신감을 얻었다.

・희망의 교도소- 흔히 범죄자가 교도소에 갔다 오면 오히려 더 큰 도둑, 더 나쁜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현실이라 생각한다. 우리 팀은 죄수들이 이곳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대로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변해서 나오는 이상적인 교도소를 만들기로 했다. 그 실현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위생적인 시설 및 텃밭 가꾸기, 그림그리기(벽화 등), 꽃밭 가꾸기를 통한 원예치료,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본래의 선한 성품을 회복하여 강화할 수 있는 '희망의 교도소'를 꿈꾼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친구들의 샘솟듯 나오는 바람직한 아이디어를 함께 손으로 만들어 가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작업이 정말 즐거웠다.

・수중 해양레저타운- 바다 속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해초, 물고기, 불가사리 등, 모든 생물들이 어우러져 평화롭게 공생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아직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지만 바다 속을 떼 지어 다니는 물고기들은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하다. 우리 팀은 지상과 해저(수중)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타운을 만들기로 구상했다. 표현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정말 모두 열심히, 성실하게 협동하여 멋진 작품을 이루어냈다. 아크릴을 둥글게 구부려 본드로 붙일 때 힘들었지만 우리는 멋지게 성공하였다. 나 자신과 친구들, 모두가 대견하고 멋지다! 전기도 설치하여 여러 색의 작은 불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다 만든 후 깜깜한 방안에서 작은 불들을 켰을 때, 우리 모두의 감격이란~! 생전 처음으로 예술가들이 된 느낌이었다. 멋진 경험,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2003년도 2학기 초, 미술과 교육Ⅱ(2학년) 수업안내를 통해 위의 활동을 제안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솔직히 상당히 불만스런 반응들이었다. 미술과전공이 아닌, 12개 교과 학생들의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술은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라 더욱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다. '환경건축'과 '협동작업'이라

는 말만 듣고도 '우린 미술전공이 아니 예요!', '만들거나 그림 그려본 기억이 까마득해요', '서로 친구들과 만나서 만들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차라리 개인작품하게 해 주세요~'라고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현행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협동작품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예비교사로서의 제작활동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자 서서히 태도를 바꾸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2주씩 잡아 먼저 평면조형으로 색의 느낌을 강조한 간단한 색 구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기법을 연습시킨 후, 입체조형물로 쓸모 있는 것 만들기를 해 보았다. 이 단계서부터 여러 학과 학생들의 잠재력 속에 숨어있던 다양한 소질과 예술 끼와 재주가 작품에 반영되었다. 감상 발표시간에 '야!, 저거 도대체 누구꺼냐? 누가 만든거야? 진짜 끝내준다'하며 서로 얼굴을 보고 감탄할 정도의 수작들이 꽤 쏟아져 나왔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입체조형물제작에 착수할 수 있었고, 이 수업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는 현장에서 웬만한 미술수업은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활동 기록・지도소감]

학생들은 협동수업 시도단계에서는 막연해하고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몰라 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술가, 디자이너, 위대한 건축가를 깨워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멋진 환경건축물과 놀이동산 등을 만들어 보자!'고 힘을 북돋워주었다. 우선 반 학생 수에 따라 5-7명씩 협동 연구조를 짜고 구상-아이디어 스케치-1차 검사 등을 거치면서 수업분위기는 점차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 검색자료와 서로 다른 조들이 궁리해온 특이한 환경건축물의 발상과 자료수집 등에 촉발되어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은 처음과는 달리, 활동과정에서 점차 활발성을 띄어갔다. 서로 생활주변에서 참신한 미술재료를 다양하게 개발해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신이 나서 눈을 생기 있게 반짝이며 즐겁게 작품을 진행해나갔다. '꿈의 교사타운', '실버타운', '공룡 테마파크', '멀티수련원', '전통 사찰 순례'. '광주교육대학 재구성', '미래도시' 등... 주제도 각양각색으로 기발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나왔다. 감상 및 작품발표시간을 통해 2주간(4시간) 동안 학생들이 하나씩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마다 얼마나 스스로가 신기하고 대견스러웠는지,,, 대부분의 활동조가 처음에는 막연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느꼈으며, 서로 한결 친밀해졌고, 잘 몰랐던 함께 한 친구들 속에도 엄청난 미술적 소질과 놀라울 정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숨어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신과 상대의 재발견! 그것이 이 수업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홀리스틱 교육의 요소가 연계되면서 포괄적으로 습득되고 달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즉, 한 학생의 인간전체 안에서 다양한 학습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인간존중, 경험적 학습의 중요성, 재료나 표현방법의 선택의 자유, 인간생활과 자연과의 관계인식, 사물과 사물과의 연계성, 주위와의 협동작업을 통한 건강한 정신적 상호작용 등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 높은 학습 성과를 거둔 것이다. 따라서 나와 타인, 자연, 사물과의 관계성인식에서 비롯된 조화와 연계의식,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로서 혼합되고 녹아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속에서 각기 엄청난 깨달음(변용)으로까지 상승된 학습효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 수업은 '실제 생활주변의 자연과 환경, 건축이나 조형물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협동심과 참여성을 기르며, 상호관계를 통한 표현력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활동목표이상의 학습 성과를 거두고 감동적인 막을 내렸다. 자신들의 대견스런 작품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친구들과 몰두했던 제작과정에 스스로 감동하여 가끔 눈물을 보이던 그들의 발표를 통해, 가슴 진하도록 '모든 인간은 본래 예술가다'라고 하는 사실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 미술교육에서 홀리스틱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홀리스틱 관점에서 미술과 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한 후, 연구자의 실천사례의 일부를 예로서 제시하여, 학교 미술교육현장에서 홀리스틱 패러다임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실천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또한,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준거하여 현행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의 미술과 교육의 지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였다. 즉, 홀리스틱교육 관점에서 미술과 교육의 지향은 창의성, 심미성, 연계성, 균형성, 통합성, 조화성, 참여성, 전인성, 공동체, 자연환경의 추구의 10가지로 상정하고, 그 실천전략으로 내용영역에 따라 1. 미적체험 영역에서 자연 및 생명체험, 환경교육의 활성화 전략 2. 표현영역에서 협동학습(전체학습, 모둠별 학습 등)과 자율·선택학습 전략, 3. 감상영역에서 통합교과 학습전략과 통합교육과정(타교과간, 미술교과내) 재구성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미술 실기실, 자연환경체험을 위한 학교내 숲조성 등,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혁신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접근은 기초적이고 포괄적이며 다소 부분적이어서 앞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요구되며 점차 보완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술교육이 오늘날의 통합적, 전연계적인 홀리스틱 교육의 행보에 뜻을 함께하여 본격적

연구의 일보를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분명 있다고 하겠다. 미술교육의 본래의 목표가 인간과 자연, 세계—생태계—우주와의 상호의존성과 역동성, 공동체 의식, 전연계성, 생명체에의 절대인식을 교육의 핵심원리로 하는 홀리스틱 교육원리와 넓은 공감대를 공유한다면, 이 시점을 기하여 보다 더 전체와의 연계성·생명화·균형화에의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진 미술과의 실천 전략이나 방법론에 있지 않다고 본다. 이를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해갈 교육자들의 실천적 의지와 마음자세, 그리고 진정 좋은 교육을 하려는 진지한 연구 자세와 교육비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전인(全人)교육'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는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과정은 있으나 인간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과목이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조한무, 2002: 199), 최근 더욱 비인간화현상이 심화되어가는 학교문제를 둘러싼 인간성 회복의 과제는 사회문제, 교육문제로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홀리스틱 교육이 진정 한 인간, 한 인간의 존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접근하는 총체적인 접근이라면, 현재 우리 교육의 치우침을 균형화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개인과 개인—사회—공동체간의 분리(fragmentation)감의 간극을 좁히는 인간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통합적인 사고를 우리의 예술적 창의력에 접맥시켜야하지 않겠는가?

이제 한국의 교과교육은 홀리스틱 교육사상의 지평을 열고, 현실의 근본적인 교육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서로 폭넓은 대화를 교환하기 시작하고 있다. 금후, 미술과교육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통합의 마당에 한데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발전'[1]을 도모해가야한다고 생각하면서 홀리스틱 미술교육의 실천을 제안한다.

이는 모두가 조화로운 공동생명체라는 연계적 생명의식을 기초로 한 조형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존과 상생의 시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갈 힘을 계발해 주는 것에 미술교육의 진정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 '발전의 긍정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발전 개념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발전의 생소한 개념이다. (고철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교수신문, 2004.5.17 1면)

【참고문헌】

이미자(2001). 「초등학교 조기 컴퓨터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지발달에 대한 영향 중심으로」. 『初等教育研究』『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ol. 14, No. 2. 279-301.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2002). 『초등학교교사용지도서』미술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 『미술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Ⅱ)』.

김현재(1999). 「열린교육의 본질화와 현대화」. 『홀리스틱교육 교장연수자료』. 한국홀리스틱 교육실천학회. 3-22.

박영만(1999). 「홀리스틱교육과정 철학과 교장의 역할」.『홀리스틱 교육 교장연수자료』. 한국홀리스틱 교육실천학회. 59-89.

박영만(2002). 「홀리스틱 교육의 패러다임」. 『홀리스틱 교육의 원리와 방법』 . 도서출판 엘리트. 3-53.

김현수(1999). 「신 홍익인간 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의 실천방안」. 『홍익인간이념과 21세기 한국』. 단군학회. 2-46.

김성숙(2001). 「홀리스틱 교육 관점에서의 슈타이너 '교육예술'」. 『홀리스틱 교육연구』 제5집 제1호. 한국홀리스틱 교육실천학회. 53-67.

_____(2003). 「미술교육의 이해」. 『미술교육과 문화』. 김정희 외. 서울: 학지사. 15-68.

김정희(2002). 「홀리스틱교육과 예술교육」. 박영만 외. 『홀리스틱 교육의 원리와 방법』. 도서출판 엘리트. 315-355.

정문성(2002). 「왜 홀리스틱 교육인가?」. 『홀리스틱 교육의 원리와 방법』. 도서출판 엘리트. pp.59-74.

송민영(1999). 「홀리스틱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새로운 교사의 역할」. 『홀리스틱 교육 교장연수자료』.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학회. 131-154.

송민영(2003). 「홀리스틱교육과 현대교육사상들과의 대화」. 『학문간 대화를 통한 홀리스틱교육의 성찰과 비전』.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세미나집. 39-65.

최유현(2001). 「홀리스틱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과교육의 실천전략」. 『홀리스틱 교육연구』 제5집 제1호, 한국홀리스틱 교육실천학회. 129-148.

조한무(2002). 「홀리스틱 교육평가」. 박영만 외. 『홀리스틱 교육의 원리와 방법』 . 도서출판 엘리트. 197-271.

일본홀리스틱교육연구회, 송민영・김현재 옮김(2000). 『홀리스틱교육의 이해』. 책사랑.

【Abstract】

Suggestions of Holistic Art Education
-The Direction and Practice of Art Education from the Holistic Perspective-

Kim, Sung-Sook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resent study aims at exploring the directions and practical strategies of art education based on Holistic paradigm of education drawing attention for new educational reform movement by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since the late 20th century, which focused on life-respect education and spiritual education missed in the current school education.

Thus,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s:

1. First, to discuss the need of Holistic education in art education,
2. From the perspective of Holistic education, to explore the practice and strategy of art education, and
3. Based on the paradigm of Holistic education, to introduce several cases of practices of art education and its influence on learning.

As a result,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art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human beings and the world, and human beings and ecology are considered as important in Holistic paradigm of education. Thu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change of thinking toward the Holistic educational paradigm and connection education between the body and the min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ducating truly artful human beings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art.

Key words: Holistic Education, Practical Approach, Observing relationships